

| | | |
|---|--|---|
|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새고려신문</h1>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 <p>2017년 10월 13일(금) (음력 8월 24일) Пятница 13 октября 2017 г. № 40(116757)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올해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 571돌이 되는 해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에서 펼쳐진 한글날 기념행사.

(관련 기사 3번)

(이예식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 우수 생산업체 선발

해마다 진행되는 <사할린의 품질> 경연대회에는 20여 개의 식품 및 가공업의 선두적인 업체들이 참가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경연의 주요 목적은 지역 식품의 대중화를 꾀하고 있다. 경연은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이 매점에서 구입한 식품을 조사하는데 품질평가만 아니라 소비자의 평가와 업체의 생산력의 발전 요소도 평가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차에서 선발된 업체들이 참가하는 마지막 단계로 전통적으로 식품 박람회 형태로 진행되어 행사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직접 시식을 권했다.

우승자로는 코르사코브 제빵공장(1급 밀가루로 만든 빵), <소콜롭스키>농장(지방함량 20-30%의 스메타나/우유제품), <포로나이스크>우유공장(스메타나), <유즈노사할린스키>습호즈(케피르/우유제품), <졸로토이 켈로노크(황금 송아지)>업체(최고기 소시지), <판타지아>회사(원제퍼), <오호토모리예>회사(연어알 통조림), 하르첸코 개인업체(식물성 기름에 담긴 연어 조각 통조림), <안타르노예>회사(연어 통조림), <달네위스토츠닉>업체(다시마 샐러드 통조림), <사할린스키>콜바사 업체(돼지고기 소시지와 콜바사)이다.

이 업체들은 광고에 <사할린 품질>의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이 업체들은 <러시아의 100개 우수제품>전국 경연에서 선정된 제품을 소개하게 된다.

주한인여성회, 인하대·국립국어원 파견단과 간담회 가져

지난 10일(화) <가가린>호텔 연회장에서 사할린주한인여성회(회장 김웨철)가 9월 초부터 인하대·국립국어원 파견으로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한국어 예비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는 권행자 세계한인족여성재단 이사장의 발의와 새고려신문사의 협찬으로 이뤄졌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주한인여성회 활동, 한국에서 온 예비교사들의 현지 사업 소개가 있었고 예비교사들의 소회를 나누었다. 행사에는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림중환 회장, <소망>아동창작협력회 김준경 회장 등이 초대되어 참석했다.

니 아나톨리 조각가에 대한 출판물 소개

10월 13일(금) 정오 12시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러시아소베트연방사회주의 공화국 공훈화가인 니 아나톨리 조각가에 대한 앨범 프레젠테이션이 개최된다.

1964년부터 2008년까지 사할린에서 돌과 나무와 철로 수준 높은 작품들을 제작한 조각가 니 아나톨리의 조각상은 100여 개가 된다. 사할린에 잘 알려진 조각상으로는 위대한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 사할린 낚시 작가 블라지미르 산기, 해군 대장 겐나디 네벨스코이 등이다. 니 작가의 작품은 국립 트레차코브 갤러리를 포함해 국내외의 여러 박물관들에 소장돼 있다. 사할린주 미술발전에 큰 공을 세운 니 조각가는 작년에 작고했다.

사할린주 지도부, 연방 정부와 함께 주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

현재 사할린주정부와 연방 기관들은 주예산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분석 중이다. 러시아연방정부 부총리인 유리 트루트네브 러시아대통령극동연방구 전권대표는 석유가스에 대한 수익이 감소될 경우 사할린지역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로 결정했다.

얼마 전 러시아 연방 정부의 현 예산법 개정에 대한 제안이 승인되었음을 발표했다. <사할린-2>프로젝트에서 생산물분배협정에 따라 소득세 분배를 변경해 75%를 연방정부로 귀속시키는 내용이였다. 현재 <사할린-2>프로젝트로부터 소득세 75%는 사할린주 예산으로, 25%는 연방예산으로 분배되고 있으나 당장 내년부터는 연방 정부에 75%, 사할린주에는 25%가 국고로 귀속될 전망이다.

모스크바로 출장 중인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러시아연방의회 알렌찌나 마트위엔코 상원의장, 국가두마 왜체슬라브 월로진 의장을 만나 법안 개정이 가능해질 경우 초래되는 결과들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사할린주 재정부 직원들은 연방 전문재정부에서 같은 내용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우선적으로 공공예산 분야의 직원들 임금, 교육기관, 의료기관의 근로자 등, 주택공공경리에 대한 보조금, 특별대상 등이 금액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 자금이 없이는 주에 사회적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될 전망이다. 이미 시작된 사할린과 쿠릴 열도 경제개발 계획은 계속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빠른 시일 내에 연방과 주 재정 기관들은 함께 내년에 분배될 예산액을 고려해 주 예산의 계획에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문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사할린주, 러시아사회보험재단 세미나-회의 개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사할린에서 러시아 사회보험재단이 개최한 세미나·회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전국 26개 지역에서 건강, 연금, 세금 분야와 관련된 관청과 재단의 지도자들이 참가했다.

행사의 주요 논제는 사회보험재단들의 사업 운영 시스템에 감독과 감사였다. 러시아연방 사회보험재단의 세르게이 알레센코 부이사장이 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2년간 재단의 활동을 총괄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재단들의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을 환영한 사할린주정부 안톤 자이체프 부수상은 행사 일정이 사할린주와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주제라며 사할린에 출생률 증가, 젊은 근로 연령층의 역할 확대, 반면 노년층의 증가로 사회복지 관점에서 국가의 의무도 높아진 상황을 지적하며 주민의 안녕과 사회통계학적 문제 해결이 많은 점에서 주민의 사회복지 수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세미나를 통해 사회보험재단 사업의 질적 향상이 촉진될 것이라 전망했다.

사할린 청소년태권도 선수들 유럽권 태권도시합에서 2개 메달 획득

10월 5-8일간 유럽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유럽청소년태권도대회가 이뤄졌다. 경기에는 43개 국가의 12-14세 청소년태권도 선수들 약 500여 명이 참가했다.

경기에는 러시아대표팀 중에 사할린에서 3명의 대표선수가 참가해 출전했다. 첫날 경기에 37kg급에서 장현철 선수가 출전해 5위를 차지하고 같은 날 에밀리아 리는 29 kg급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 이튿날 41kg급에서 최 알렉산드르가 출전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총 경기에서 러시아대표팀은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7개를 획득하여 단체 1위를 차지했다.

| | | |
|---|--|--|
| <h2 style="margin: 0;">새고려신문</h2> | <h2 style="margin: 0;">2018년 신문주문 시작!</h2> | |
|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p>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p> | | |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한국 재외동포재단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7년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개최했다. 사할린 한인들을 대표하여 이 행사에 사할린한인회 회장으로서 처음 박순옥 회장이 참석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한국 출장을 다녀온 박 회장과 만나 세계한인회장대회, 주한인회 활동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 주한인회 회장으로 처음 이 행사에 참석하셨는데 소감과 행사 진행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 정말 규모 큰 행사였습니다. 세계 80여 개국을 대표하는 한인회장 4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인사 나누기도 바빴습니다. 네팔, 인도,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오셨습니다.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와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도 오셨습니다. 러시아 참가자들을 소개하자면 조 와실리 전 러시아고려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쥘메니, 켈라빈스크, 로스토브 고려인회, 극동시베리아 고려인연합회 등 회장들이 참가했죠. 이미 활동을 통해 아는 분들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빈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CIS 지역에 있는 한인회(교민회) 회장들도 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재외동포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행사 개최식에는 재외동포들을 소중히 여기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하셨습니다. 사실 세계한인회장대회를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 기념을 앞두고 진행했는데 대회 개최식과 세계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겸했어요. 문 대통령은 환영사를 하고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재외동포들에게 훈장과 포상을 수여하셨습니다.

주요 일정 중에는 아마도 지역별 현안토론이 뜨거웠다 할까요.

- 지역별 회의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지역별 회의에서 주로 차세대 육성 또는 지원 방안을 논의

신정주 한인동포와 고려인동포 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적극 토론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한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과 인터뷰



했거든요. 우리(러시아·CIS)가 논의한 주제는 신정주 한인동포와 고려인동포 간 교류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고려인처럼 150여 년 또는 사할린 한인처럼 80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오랜 정착의 역사를 가진 동포와 교민으로 오신 분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 단체로 통합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회의 중에는 사실 사할린주한인회가 고려인협회가 아니고 주한인회라며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권을 가져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선 자기 소개를 한국말로 하고 한국말이 좀 짧아서 통역원을 통해 사할린한인들이 '한인'으로 불리우는 원인을 말하고 사할린주한인회는 1990년대 초기부터 공식적으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지역별 현안토론에서 제가 러시아 동포대표로서 러시아 측 입장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러시아 동포들을 대표하는 한 분을 연합회 회원으로 선정했어야 했고 한국 교민들도 한 분을 대표로 하여 이

렇게 러시아 CIS 총연합회를 결성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편 논의 끝에 아예 대표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죠.

제가 발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역의 역할을 존중하고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기꺼이 협력 가능하다. 한민족 동포로서 협력은 당연하나, 국가 간 지역 간 역사 간 정치 및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각 단체들은 '고려인협회' 및 '한인회' 대표로서 각각의 사회를 대표하는 입장이므로 마찰 및 부정적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서로의 역할을 인정,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 다른 내용은 토의하지 않으셨나요?

- 또 우리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동포사회의 기여 방안에 대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문제에는 주로 지역별 참가자 모두 공감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교류(세미나 등)를 러시아에서 자주 가져야 한다. 1. 지리적, 지정학적으로 적합함. 2. 러시아는 남북한 양국과 공식, 비공식적으로도 우호관계가 좋음; NGO 대표들 중 고려인 동포를 공공외교 대사로 선출하여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방법 제시 가능. 3. 문화, 체육, 교육 등 공동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통일로 나가는 방법에 기여 할 수 있음.'*이란 내용이었죠.

- 한인회장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더 잘 알게 되고 협력할 기회도 만들어질거라 봅니다. 이번 대회에서 저는 전국사할린귀국

동포단체협회 권경석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다른 영주귀국자들과도 만났습니다. 여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동안에는 여러 행사와 간담회가 많았고 재외동포사진전도 보았습니다.

미약한 점도 있었지만 정부가 바뀐 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회장님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전까지는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아요.

- 잘 아시지만 한인회가 하는 행사도 많았고 사할린 한인대표로서 수행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6월-7월에는 사할린 1세들이 제2차 진료를 한국에서 받으셨고 또 우리 단체가 실시하는 <한 가정에서>란 프로젝트로 홀스크, 돌린스크 등에서 공연행사가 펼쳐졌죠. 마카로브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함께다.>란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주최 측 중 하나는 마카로브한인회이고 주한인회에서도 이 행사를 항상 후원해 왔습니다. 올해는 다른 지역 한인회장들도 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8월에는 가장 큰 행사인 광복절 행사를 조성했죠. 이번 행사에는 강원도 홍보대사,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리리 팝아티스트가 출연하셨고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가 참가자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영주귀국자들도 사할린 역방문을 하시고 9월 말부터는 부모들과 재회를 위해 처음으로 단체로 2-3세들의 모국방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270명이 모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미 한국 가수의 위문공연과 제2회 <사할린 아리랑>축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단체들도 사할린을 방문하여 주한인회 관계자들과 만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블라디보스토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간담회에 1세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어 기쁘고 문 대통령께서 사할린 한인(이중징용, 사할린한인 유골 봉환, 2-3세들의 모국 방문)문제를 알고 계셔서 이제야 사할린한인문제들이 해결될 것 이란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주행정부, 시행정부, 사할린사회원, 사할린민족아삼블레야와도 긴밀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자매도시인 안산에서 대표단이 사할린을 찾아왔을 때 앞으로 한인문화센터 부근 부지를 정돈하고 소공원을 만들 계획도 심의할 것 이란 약속도 받았습니다.

- 네, 간략하게 활동을 소개해 주셨지만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앞으로 할 일도 많겠지요?

- 10월 말에 주한인회 운영위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주정부 지원 그랜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새고려신문사 이예식 기자님의 사진전도 오픈하고 <귀환> 사진집 프레젠테이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화 그림 그리기 콩쿠르 수상자들을 선정하고 수상작들로 달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27인 한인피살추념비에 대한 동영상 제작도 준비 중입니다.

이제 내년 행사들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사할린 강제동원 80주년이 되는 해 인지라 앞으로 추진해야 할 행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추진해야 할 행사가 많네요.

-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 저 모

사할린주, 8개월간 신생아 4000여 명 출생

1월에서 8월까지 사할린주에 자연적 인구증가가 기록되었다. 사할린주의 각 가족등록사무소에서는 쌍둥이와 세 쌍둥이 58명을 포함한 4183명의 신생아가 등록되었다. 지역 사망자 수는 3982명, 자연적 증가는 201명으로, 341명이었던 2016년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6개 지역(유즈노사할린스크, 아니와, 쿠릴스크, 노글리키, 세웨로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구역들)은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주에서 혼인은 2625건, 이혼은 1848건으로 2016년에 혼인 2576건, 이혼 1795건과 비교적 유사한 수치로 나타났다.

러시아 내무성 사할린주 이민관리국 정보에 따르면 1월-8월간 사할린과 쿠릴지역에서 1만5437명이 체류 그중 62.4%는 거주 목적이었고 사할린으로부터의 이주민은 1만3763명으로 그중 76.1%는 거주 등록지에서 삭제되었다. 사할린주 내에서는 5752명이 거주지를 이전했고 사할린주로의 이주민은 1674명에 달했다고 사할린통계국 홍보실이 전했다.

За восемь месяце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вет появились четыре тысячи детей

За январь-авгус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 естественный прирост населе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органах ЗАГС 4183 родившихся, в том числе 58 многоплодных родов (двойни и тройни). Число умерших по региону составило 3982 человека. Естественный прирост составил 201 человек,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6 года прирост составлял 341 человек. Превышение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над числом умерших отмечено в шес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нивский, Курильский, Ногликский,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ий,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районы.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2625 браков и 1848 разводов против 2576 браков и 1795 разво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6 года.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август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были 15 437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62,4% —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ыбыли 13 763 человека, из которых 76,1% снято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чета по прежнему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еня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5752 человека. Миграционный прирост составил 1674 человек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사할린에서 1917년 기념 전시회가 열려

10월 13일 16시 사할린주향토박물관에서 <1917

년 혁명의 해: 문서가 증거한다.> 주제로 러시아국립 중앙현대역사박물관(모스크바)의 소장품 전시회가 열린다. 러시아의 역사상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서 100주년 기념 전시회는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의 위상을 지난 수십년간 앞서게 했던 위대한 혁명을 기념한다.

전시는 소련 국가의 첫 지도자들(웨.레닌, 게.페트롭스키, 페.레페신스키, 게.오르조니키드제)의 활동들을 반영하는 자료와 야.스웨르들로브, 에프.드제르진스키의 개인 소장품들, 그리고 당시 혁명의 참가자들이 사용했던 무기, 사진, 선전물, 기념 배지와 메달, 1917년에 드라마틱한 주요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 하는 문서들을 소개한다고 박물관 홍보실은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оется 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ная 1917 году

13 октября в 16:00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состоится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Революционный 1917 год: документы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из фонд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центрального музея современной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Москва).

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а 100-летию юбилею одного из важнейших событий в истории России — Великой российской революции, которая кардинально изменила жизнь граждан и определила облик страны на десятилетия вперед.

전후 사할린 다문화 역사를 살펴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전후 사할린: 문화와 교육>이란 기획전시가 열렸다. 지난 9일(월) 주미술관에서는 이 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주의 다문화 역사: 비교연구와 박물관화> 국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미나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사할린주 미술박물관 하이 울가 총괄 연구실장이 참가자들을 위해 <전후 사할린: 문화와 교육> 전시품들을 소개하고 이 전시품들의 이념의 시초와 과정, 당시의 역사적인 의미 등을 설명했다.

세미나 진행은 사할린주국립 역사고문서보관소의 연구전문가인 진 울리야 역사학 준박사가 맡았다. 훗카이도 대학교의 연구가 스웨틀라나 파이차드제는 "전후 사할린 역사를 러시아, 일본, 한국 박물관들에서 반영한 점"이란 발표를 하여 새로운 정보를 전했다.

푸지노 에헤이 연구가(훗카이도 대학교)는 대만 박물관들을 살펴보고 그 박물관들에서 그곳 역사문화가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소개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 중국의 침략을 여러 번 당한 대만의 박물관들이 각각 역사를 보는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다. 진 올라 연구가의 발표는 전



후 남사할린 및 쿠릴열도시민권리국의 민족정책에 대한 것이었다. 연구가는 조선인과 일본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들이 소련사회에 어떻게 적응해갔는지, 민족정책의 기본원칙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했다.

사할린주미술관 이리나 말코와 부관장은 전후 다문화 역사가 소련(사할린) 미술가들의 작품들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 보았다. 작품 대다수는 현재 미술관 소장품들이다.

히라이 타케푸미 연구가(훗카이도 대학교)는 사할린 산업의 유산을 주제로 삼고 이 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전쟁 이전 사할린에는 많은 제지 공장들과 탄광들이 가라후토 시대에 건설되었으나 현재는 거의 파괴되어 있는 상태다. 일본에서는 낡은 공장 등을 박물관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개

념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산업유산의 개념이 아직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할린을 여행하는 일본인들은 옛 공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러시아 지리학회 사할린 지부장인 세르게이 포노마료브는 사할린주 문화유산의 보전에 대한 본회의 활동을 소개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사할린국립대 이리나 바리츠카야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다문화 교육을 통한 본 대학의 활동 연구를 소개했다.

이날 발표 자료들 모두가 흥미로운데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서로 자연스러운 교제도 이뤄졌다. 세미나는 사할린주 미술박물관, 훗카이도대학교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사할린국립역사고문서보관소, 사할린 인문기술대학이 주최했다.

(배순신기자)

1937년 사할린 한인 중앙아시아 집단이주

- 새로운 정착지로 이주와 정주의 특징 -

진 울리야 (역사학박사, 사할린국립문서보관소) 장 원창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서울)

(전호의 계속)

사할린주 하바로프스크 변방집행위원회 납세와 민족분과의 자료에 따르면 1932년 1월 1일 한인은 3,200명으로, 이중 오후구역에 3,000명, 알렉산드로프스크와 르브노프스크 구역에 각 100명씩 살았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는 사할린 북부 지역에 살았던 한인들에 대한 대강의 숫자이고, 소련국적 한인인지 일본국적 한인인지 정확하지 않다. 1937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 숫자는 현저히 줄어든다.

이렇게 1937년 가을 사할린정부는 하바로프스크 변방 집행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는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모든 한인은 10월 안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해야 한다. 일반 한인과 함께 한인 인텔리 계층인 교원, 농업기사, 의사와 한인 공산당원과 품소몰도 이주한다.

이주는 즉시 시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정확한 기일 안에 이주민에 대한 모든 정산을 끝내고 시간표에 따라 한인 이주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증기선으로 수찬으로 출발한다. 한인들에게 이주 시 동산, 농사도구 및 가축의 소유를 허락한다."

한인들에게는 남겨진 그들의 부동산과 아직 거두지 못한 곡식과 어업단체에 남겨진 어업도구와 기구, 배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상되었다. 동산 및 부동산, 추수하지 못한 농작물에 대한 보상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인 콜호즈의 재산은 1937년 1월 1일 기준가격으로 평가되었고, 1937년 1월 1일 이후 콜호즈가 획득한 재산은 실제가격으로, 수확하지 못한 곡식은 구역집행위원회가 산정한 동종의 곡식의 평균수확량에 기본 매수가격으로 평가되었다. 이주한인의 모든 가축과 경지는 가축비축위원회가 수용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정주지에서 현물로 한다. 모든 분리할 수 없는 콜호즈 재산 혹은 개인경영 재산은 보험가격으로 계산되고 보상된다. 보상금은 현금 혹은 증서로 지급되었고, 자신의 곡식을 새로운 정주지에서 보상을 조건으로 지역 곡식비축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주민은 자신의 농구 및 어구를 갖고 직업별로 집단화한 열차로 출발하였다.

한인의 이주와 함께 한인학교 교구, 시골독서실, 도서관의 시설, 한국어 서적과 한국어 그림책도 함께 이송되었다.

한인의 이주와 함께 한인학교 교구, 시골독서실, 도서관의 시설, 한국어 서적과 한국어 그림책도 함께 이송되었다.

사할린정부는 이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9월 20일 현재 사할린주 전체에서 총 1,155명이 거주한다. 이 중 르브노프스크 구역에 67가구 283명이 거주하며, 이중 순수 한인콜호즈에 83명, 혼합콜호즈에 205명이 거주한다. 서사할린 구역에는 31가구 191명으로 순수한인 콜호즈는 없다. 알렉산드로프스크구역은 98가구 239명, 혼합콜호즈 2개만 있다. 오후구역은 85가구 390명으로 콜호즈는 없다. 동사할린과 키로프스크 구역은 4가구 12명이다."

1932년부터 이러한 급격한 한인 인구수의 감소는 (3,200명에서 1,100명으로 감소) 강제이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주에 관한 명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주 대상의 한인들에게 그들의 희망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한다."

이주 명령을 받은 한인들의 숫자의 감소는 이주를 준비하는 사할린 담당자의 보고 중의 하나에 나타난다 "두에에 오자 우리는 바로 한인이주에 대한 정부결정에 대해 부락 소비에트 의장, 공산당 서기, 인민위원회 통제구역 책임자 회의를 열고, 그 후 두에와 마카리에브카의 한인인구 조사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조사표에 의하면 전체 6가구였으나, 막사별 정밀조사에 의해 추가로 2가구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두에와 마카리에브카 광산에 가구가 존재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들 중 7가구는 일본 국민으로 일본여권과 소련 임시체류증을 가지고 있었다. 3명의 가구로 구성된 김영운 가족은(처와 아이) 소련국민으로 소련여권을 가지고 있었다. 김영운은 마카리에브카 광산에서 노동자로 일하였다. 우리는 이 김영운에게 이주에 관한 정부의 명령에 대해 얘기하였다. 김영운은 이주에 대해 완전히 만족해 했다. 마카리에브 광산은 그와 충분한 정산을 하였고, 김영운은 어떠한 불만도 없었다. 반대로 빠른 이주를 도와주어서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였다."

(계속)

동양김나지아, 한국 예비교사단의 협력으로 한글날 기념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이날은 한국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제정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올해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 571돌이 되는 해이다. 얼마전부터 사할린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한글날을 기념한다.

올해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전 제9동양어문학교)가 사할린한국교육원에 실습으로 파견된 예비교사들에게 특별수업을 부탁했다. 원어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훨씬 더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인하대·국립국어원 파견 예비교사들은 10월 9일 김나지아 두 반에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한 반에서는 한복 입어보기와 한복종이접기행사를 하고, 그리고 서예를 가르쳤다. 또 다른 반에는 한글날 퀴즈를 진행하고 상품도 주며 한국문화를 알려주기도 했다.

예비교사 교육담당인 이은진 선생에 따르면 학생들은 즐거워 하며 아주 만족해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예비교사들도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실습으로 사할린에 파견된 예비교사단은 하루하루가 바쁘다. 1주일에 4번 교육원에서 한국어교육을



펼치고 코르사코브 학교, 유즈노사할린스크 등 학교들에서도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한글수업, 또는 관련 행사를 하고 있다. 올 토요일에는 사할린 한국어교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еминар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а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авнитель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музеефикация»

9 октября в 15:00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проше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еминар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а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авнитель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музеефикация», посвященный 70-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временных границах.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семинара выступили ГБУК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факультет «Медиа и коммуникации» Хоккай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НОО ВО «Сахалинский гуманитар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ГБ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минар проходил в рамках выставочной экспозиц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Послевоенный Сахалин: культура и образование».



Перед началом семинара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музея Ольга Хай познакомила гостей и участников с выставкой, провела экскурсию по выставочным залам музея, рассказала как зародилась идея выставки и какое историческое содержание она несет.

В 15:30 начались выступления участников. Сотрудники Хоккай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ветлана Пайчадзе, Фудзино Ехэй и Хираи Такефуми выступили с докладами, посвященными освещению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музеях России, Япон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сохранению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на Сахалине и Тайване.

Доклад Юлии Дин был посвящен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Граждан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Историк рассказала о том, какими основными принципами руководствовались Граждан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в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с японцами и корейцам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осле войны, в каких условиях происходила адаптация их к жизни в советском обществе.

Сотруд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Ирина Малькова представила доклад об отражени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истории послевоенного Сахалина в искусстве.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многие известные художники, такие как Г. Манткава, В.К. Зедайн, Б.Г. Шахназаров, привлеченные романтикой н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приезжали на Сахалин и создавали свои произведения, отражающие суть послевоенной жизни. Большинство работ этих авторов хранятся сейчас в фондах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ергей Пономарев выступил с интересным докладом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щества по сохранению культурного 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наслед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презентовал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только что вышедшую монографию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Совет депутатов трудящихся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РСФСР в 1939–1946 гг.».

Професс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рина Балицкая в соавторстве с Инной Майоровой представила доклад «Комплексный подход трансформац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аспекте поли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котором рассказала о новых тенденциях и направлениях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минар прошел в теплой, дружеской атмосфере и позвонил сахалинским ученым и исследователям обменяться контактами с коллегами из Японии.

Принудитель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о. Сахалин в 1937 г.: особенности выселения и вселения на нов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Дин Ю.И., к.и.н.
Чжан Вончан, РК

(Начало в № 38, 39)

От 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Дуйского распада были заданы вопросы: 1) есть ли там близко лес, 2) имеется ли пахотная земля, можно ли ловить рыбу и где – в озерах, или реках, как мы поедим, денег на дорогу мало и т.д. Когда я им вторично и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 как они будут ехать и за счет государства, они остались довольны и больше вопросов не было. Считаю настроение этих граждан здоровым, никаких антисоветских выступлений или разговоров у них при мне не было».

Однако, организация переселения наталкивалась и на трудности. Особенную трудность представлял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Сахалина – осенний штормовой период и перевозка людей на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кунгасах и катерах была связана с большими опасностями для жизни людей.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и собрать всех корейцев всего в двух перевозочных пунктах для погрузки их на пароходы.

В итоге транспортные суда заходили за корейцами в шесть пунктов – Москальво, Наумовку, Успенку, Половинку, Най-Най, Широкая Падь.

Переселение прошло успешно и корейцы были отправлены с Сахалина на материк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следования в эшелонах в Среднюю Азию. Денежные расчеты с ними производились довольно скрупулезно, например глава рыболовческого колхоза «Восточное море» докладывал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ереселения:

«1. Из колхоза выбыло в порядке переселения 55 членов с семьями.

2. В окончательный расчет по индивидуальному заработку переселяемых колхозников, включая заработок за перевыполнение плана (премия-надбавки), а также в расчет за принятое от них личное имущество и огороды, уплачено 99712 руб. 07 коп.

Всем переселяемым членам колхоза выданы на руки расчетные листы, а на оставшихся в колхозе и для комиссии экземплярах этих расчетных листов отобраны расписки о согласии с расчетом.

3. Всем переселяемым членам колхоза выделены неделимые фонды, а также фонд кассы взаимопомощи, при чем правлению колхоза выдано на руки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членам колхоза в пути - за счет кассы взаимопомощи 18708,88 руб., за счет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ого фонда – 5000,00 руб.

Одновременно каждому члену колхоза выдана справка опадающих на его долю неделимых фондов с указанием суммы его задолженности, подлежащей взысканию в новом месте жительства и зачислению в неделимые фонды вновь организуемого колхоза.

Наряду с этим, была произведена проверка колхозников, прибывших на Половинку для переселения членов колхозов «Красный Яр», «Красный Восток», «Новая жизнь» по правильности расчетов с ними, выявлен не полный расчет, исправлено и колхозники получили причитающиеся им деньги».

Важным в свете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Северного Сахалина было и устройство их на новом месте.

6 ноября 1937 г. нарком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Узбекской ССР, сотруд-

ник НКВД майор Апресян докладывал в Москву: «Эшелон с переселенцами-рыбаками с Сахалина, которые возбуждали ходатайство (сообщено телеграммой от 5 ноября) о поселении их вместо Каракалпакии на побережье Каспийского моря, в Красноводск и Гурьев прибыл в Арысь 6 ноября. Переселенцы свое ходатайство возобновили. Мы, не имея ваших указаний, 6 ноября эшелон отправили на Аральское море. Если ваши указания 7 ноября не последуют, переселенцы 8 ноября будут погружены на пароход и отправлены в Кунградский район, где рыбная ловля может быть организована только на озерах. Переселенцы же претендуют на морскую рыбную ловлю. На пути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также движется эшелон № 501/45 также с морскими рыбаками. Просим вашего срочного указания на размещение рыбаков из морских бассейнов, поскольку не имеем таких пунктов в Узбекистане».

Вскоре после этого, Апресян вновь докладывает: «В результате уточнения контингента рыбаков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ДВК всего в Каракалпакию будет отгружено 2000 рыбацких хозяйств, из которых свыше 500 рыбаков морских бассейнов. Общий план поселения в Каракалпакии будет 2800 вместо 2000. Срочно поставьте вопрос в обкоме и Совнаркоме, разработайте конкретный план размещени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переселенцев по всем районам Каракалпакии, добиваясь компактности. Отдельно проработать вопрос размещения 500 рыбаков в бассейне Аральского моря. 5-6 ноября из Арыси на станцию в Аральском море для Каракалпакии уже отправлено 5 эшелонов 1388 рыбацких хозяйств. Ввиду поздних сроков навигации по Аральскому морю и низовьям Амударьи разработайте особые меры передвижения переселенцев по пунктам поселения. Регулярно информируйте меня о ходе расселения». Как мы видим, организаторы переселения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удовлетворить ходатайство корейцев-членов рыболовческих колхозов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их, но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и поселить их в Каракалпакию, имеющую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й выход к Аральскому морю.

Корейцы для Каракалпакии двигались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эшелонах № 501 (60 вагонов, 358 семей, 1362 человека), № 502 (62 вагона, 307 семей, 1412 человек), № 503 (67 вагонов, 366 семей, 1744 человек). Они должны были быть перемещены в Гурлен в Аральское море на пароходах Наркомвода. Ответственным за переброску людей был капитан Меер, помощник народного комиссара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Узбекской ССР.

Уже в конце сентября организаторы переселения испытывали беспокойство по переброске корейцев к Аральскому морю. Из Алматы сотрудник НКВД Загвоздин докладывал начальству в Москву: «Имею сведения, что 29 сентября разгружены на станции Кызыл-Орда 2 эшелона № 503/601 (комендант

Степанкевич) 366 семей, 1744 людей, эшелон № 505 (комендант Куземский семей 81, 920 людей). Кроме того, на станции Джусалы разгружен эшелон 503, других подробностей нет. Все перечисленные эшелоны по распоряжению нарком тов. Ежова следовали на Аральское море для поселения в Каракалпакию и Хорезм. На данной станции Арысь на этот участок дороги в адрес Казахстана ни один эшелон не проходил, тем самым разгрузки не было. Прошу срочно проверить и сообщить, чьим распоряжением эшелоны разгружены, как исправить это. Учтите, навигация в Аральском море и Амударье последний месяц, задержка эшелонов осложнит выполнение директивы наркомт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ральского пароходства Тачмедов 6 октября предупредил Меера о сложностях перевозки морским путем: «С точным подсчетом по установленному графику в течении октября Аральское пароходство может перевезти максимально 18000 человек. В течении ноября перевозка людей невозможна, большие холода, штормы. Также в ноябре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вести в Каракалпакию 40 000 тонн грузов по снабжению хлопкоборцов. Сейчас в Аральске находится 8000 человек, 7-го [октября] отправляем 2000. Все клубы, красные уголки заняты переселенцами. Просим дать указания Главнефти для выделения 2 тонны бензина для переброски багажа и больших».

Позже Тачмедов также докладывал Мееру: «Для составления графика движения пароходов Аральское пароходство требует данные, которые я просил в первой телеграмме. Отсутствие этих данных парализует всю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ую работу, может сорвать своевременность перевозок.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4 парохода сегодня отправлены в очередной рейс, вернуться 4-го. Для перевозки нужно строго увязать с Амударьинским речфлотом, иначе в Талдыке может создаться затор, там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НК для перегрузки,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быть связан со мной».

7 октября Меер ответил Тачмедову: «В связи с поздними сроками навигации и вытекающими трудностями завоза и основания контингента переселенцев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сократить поселение в Кунградском районе Каракалпакии до 2000 хозяйств вместо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ранее 5000 хозяйств. В Гурлен [переселение] одной тысячи хозяйств остается без изменения. Всего нужно перебросить флотом Аральского пароходства до пристани Аккум тысячу хозяйств или пять тысяч человек с грузом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 домашних вещей 1500 тонн, пристань Кунград – 2000 хозяйств или 9000 человек с грузом домашних вещей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2500 тонн, все перевозки по переселенцам закончить в октябре».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476 руб. 28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извал к проведению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форм

10 окт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провёл заседание своих советников и помощников. Обращаясь к участникам, он призвал приложить все усили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народного призыва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жизни и провести реформы. По его словам, речь идёт об искоренении изживших себя правил и традиций в обществе и экономике. Президент заявил, что отечественная экономика подтвердила свой высокий потенциал, достигнув максимальных экспорт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несмотря на кризис. Мун Чжэ Ин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у над увеличением уровня доходов насел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затронул вопрос о дальнейшей судьбе проект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реакторов Сингри 5 и 6. Он указа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зультатам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данного вопроса. Он также призвал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обсуждения уважать итоговое решение.

Сергей Лавров: Усиление напряжё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едопустимо

Усиление напряжё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бусловленное действиями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недопустимо. Об этом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ергей Лавров заявил 9 октября в ходе телефо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секретарём США Рексом Тиллерсоном, состоявшего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ороны. В сообщении для СМИ, размещённом на сайте МИД России, говорится, что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актуаль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блемы. Говоря о ситуации вокруг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ергей Лавров подчеркнул недопустимость эскалации напряжё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 которой ведут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енные приготовления в регионе, призвал к разрешению противоречий исключительн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методами.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руководстве произведены перестановки

Сестр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он Ына, 30-летняя Ким Ё Чжон, получила повышение, став кандидатом в члены Политбюро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сообщ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ЦТАК об итогах состоявшегося в субботу пленума ЦК ТПК. Пленум прошёл в преддверии отмечаемой 10 октября годовщины основа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До сих пор Ким Ё Чжон занимала должность заместителя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ом пропаганды и агитации ЦК ТПК, одновременно являясь депутато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На том же пленуме 67-летний Чхве Рён Хэ,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ТПК, избран в состав Центрального во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ТПК. Чхве Рён Хэ считается одним из руководителей страны, наиболее приближённых 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лидеру. В состав ЦК ТПК включены также заместитель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ом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Хон Ён Чхиль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музык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Моранбон» Хён Сон Воль.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на пленум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ризвал параллельно развивать экономику и ядерную программу.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 нынешних условиях «политика паралле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казалась абсолютно верной».

9 октября –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хангыль

9 октября жител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метили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хангыль, разработанной 571 год назад. В праздничной церемонии, состоявшейся в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имени короля Сэчжона Великого,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3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литических и научных кругов, иностранные дипломаты, студенты и простые граждане страны. Ряд организаций и отдельных лиц удостоены наград за вклад в сохранение, развитие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В 1997 году хангыль вошёл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и был назван самой логичной и научной систем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в мире.

В минувшие праздничные выходные поезда KORAIL перевезли 4,7 млн. пассажиров

В период выходных, по случаю осеннего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с 29 сентября по 9 октября, услугам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4,7 млн человек.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железных дорог KORAIL, скоростные поезда КТХ провезли 2 млн 160 тыс. человек, а обычные 2 млн 540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на 17% больше, чем в обычные дни. Наибольший объём пассажиров пришёлся на 5 октября – 490 тыс. человек. В KORAIL отметили, что благодаря усилиям сотрудников корпорации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удалось избежать проблем с движением поездов.

(RKI)

«К выселению приступить немедленно...» История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 35, 36, 38, 39)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подозрения со стороны высших властей СССР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и обстановка, сложившаяся внутр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торую раздирала борьба различных групп в местных органах власти. Даж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находившаяся в глубоком подполье и жестоко преследуемая японцами, корейская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умудрилась расколоться на несколько враждующих фракций, а на землях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рейские коммунисты открыто делились на «иркутян», «шанхайцев» и «нацсоветчиков», как прозвали эти конкурирующие группы ещё со времён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К 30-м годам среди корейских коммунистов Приморья появилась ещё одна фракция —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нововыдвиженцы», из молодых коммунистов и комсомольцев, провозгласившая своим лозунгом борьбу с фракционными склоками путем передачи руководства от партии к комсомолу. И вся эта внутренняя конкуренция зачастую сопровождалась жалобами и откровенными доносами друг на друга, только подогревавшими шпиономанию.

Существовала и проблема доверия между русскими и корейскими членами правяще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многие партийные руководител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считали, что корейские товарищи «не совсем коммунистичны и пропитаны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ой идеей». Одним словом, на фоне грозных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у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е оказалось общепризнанных лидеров, способных своим авторитетом защищать соплеменников и доказать высшей власти их лояльность.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о вмешиваться в проблемы корейце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одписанное Сталиным ровно 80 лет назад, приказывало: «К выселению приступить немедленно и закончить к 1-му января 1938 года». На выселение 170 тысяч человек отводилось чуть более четырёх месяцев.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тправляли в Среднюю Азию, на земли Казахстана и Узбекистана. По меркам будущих депортаций народов в год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ереселение 1937 года выглядит относительно гуманным: корейцам выплачивали стоимость оставляемого имущества, выделялись средства для обустройства на новом месте и даже выплачивали «суточные» по 5 рублей в день на каждого члена семь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из бюджета СССР на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было израсходовано 19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Однако, как подсчитали современные историки, выделенных средств хватило в лучшем случае на четверть реальной стоимости оставляемого переселенцами имущества.

Никакого открытого сопротивления или массовых протестов не зафиксировали ни документы тех лет, ни позднейшие мемуары переселяемых, написанные в более поздние годы. Лишь архивы сохранили отдельные высказывания потрясённых людей. Так, крестьянин села Барановка (Гродековский район Приморья) Ли Пин Су, узнав о выселении, говорил: «Лучше умереть здесь, чем ехать туда, куда переселяют, у меня много детей и нет денег». Его сосед по фамилии Пак восклицал: «Из-за двух-трёх шпионов выселяют всех корейцев...» Ли Дон Хын, работник колхоза имени Сталина (ныне в Уссурийском округе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жало-

вался: «В этом году получили хороший урожай, но не придется им 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о равносильно, что достанется собакам...» Бригадир соседнего колхоза «Приморский партизан» Ким Дун Фа говорил: «Советская власть боится, чтобы корейцы не перешли к японцам, ибо будет война...» Хотя сталинское постановление требовало «к выселению приступить немедленно», но из-за уборки урожая начало депортации задержали — и первый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эшелон с корейцами покинул Приморье только 9 сентября 1937 года. За следующие 45 суток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убыл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24 эшелона, увозивших в теплушках 36 442 корейских семьи — всего 171 781 человека.

Переселение менее чем за два месяца такого количества людей почти на пять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естественно, породило массу трудностей и трагедий. Так, один из поездов, следовавший с корейскими переселенцами в Казахстан, 12 сентября 1937 года потерпел крушение у станции Дормидонтовка (ныне Вяземский район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погиб 21 человек, более полусотни покалечились.

Было немало и маленьких, семейных трагедий. Как спустя десятилетия вспоминал Владимир Ким: «У нашего соседа по вагону Ким Ивана погибли двое детей — сын, которому было около шести лет, девочка трех лет. Девочка сильно обожглась, а мать, растерявшись и пытаясь помочь дочери, неловко опрокинула котел с супом, который находился на буржуйке, на сына. Сын, получив большой ожог головы, шеи и груди, на третий день скончался,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его пытались спасти. Смерть детей родители пытались скрыть, молчали об этом и соседи».

Родители надеялись, что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доедут до места назначения и на месте прибытия похоронят детей по своим обычаям, но на третий день трупы стали разлагаться, и они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заявить коменданту эшелона. Тела забрали на носилках работники НКВД и санитары...

На фоне большой войны в Китае мир не заметил насильствен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170 тысяч людей. Лиш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Японии, которое в тот момент само многими тысячами убивавшее корейцев и китайцев, 12 ноября 1937 года направило Москв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протест. Дипломаты Токио основывались на законах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которая после аннексии Кореи, официально провозгласила всех корейцев своими подданными независимо от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В тех условиях этот протест мог только убедить сталин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в правильности решения о выселении. Из Москвы последовал официальный ответ: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о вмешиваться в проблемы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советскими гражданами».

Так, 80 лет назад, волей большой политики закончилась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Через пару лет после депортации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1939 года всё же зафиксировал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ах 246 корейцев — 142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64 в Приморском, 21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10 на Камчатке и 9 на северном Сахалине. От некогда крупнейшего нацменьшинства остались считанные единицы.

историк Алексей Волинец,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На Сахалине около 15 процентов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позволила сэкономить биржевая площадка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малых закупок

Новую систему электронных торго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запустил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стране прошедшим летом. Поставщикам она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ткрыто конкурировать, а заказчиком – выбирать оптималь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исходя из цены и качества товаров. В ходе начального этапа на бирже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состоялось уже около 50 закупочных процедур на сумму 1,5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Как ранее сообщалось, подобную практику помимо Сахалина внедряют Калининградская область и Республика Тыва. За основу взят опыт Татарстана. Все 4 региона используют общую биржевую площадку на Интернет-ресурсе: <http://bp.zakazrf.ru/>.

Новый алгоритм разработан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так называемых «малых» закупок на суммы до 100 и (или) 400 тысяч рублей областными и муниципальными заказчиками.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позволяет производить их у единственного поставщика. Ранее его выбор мог основываться на субъективных факторах, порождающих коррупционные риски. Биржа, наоборот, их исключает.

Согласно новому подходу контракты заключаютс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конкурентных торгов на понижение цены. Процедура полностью прозрачна. Продукцию допускают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лощадку только после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подтверждения ее качества. Признанные недобросовестными поставщики лишаются возможности участвовать в дальнейших торга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ой механизм очень актуален, учитывая масштабную реализацию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ектара и существенные меры господдержки крестьянских фермерских и личных подсобных хозяйств, - отметила Елена Иванова, министр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контрактной системы в сфере закупо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 бирже уж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около трети всех потенциальных поставщиков из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свыше 100. Среди них такие крупные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и, как совхоз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и «Заречное», Поронайский молокозавод, птицефабрика «Островная», ООО «Агросервис». Для мест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 это прекрас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на конкурентной основе и без посредников. Заказчики при этом получают проверенную и качеств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по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По нашим расчетам, нововведение уже позволило сэкономить около 15 процентов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при проведении так называемых малых закупок.

Первыми заказчиками на бирже стали 40 учреждений остров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2 учрежд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и 4 -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ведения торгов, к примеру, удалось снизить на треть закупочную стоимость мясной продукции д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дома-интерната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Первоначальная цена лота с говядиной уменьшилась с 96 до 66 тысяч рублей.

Ожидается, что к 1 января 2018 года закупочные процедуры по новой схеме начнут проводить все учреж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впоследствии –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Постепенно будет расширяться номенклатура товаров – на следующем этапе – с 1 января 2018 года - помимо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на бирже представят лекарства и промышленные товары.

Потенциальным поставщикам предлагается приня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закупках на бирже. Регламенты, определяющие порядок регистрации, участия в закупках и заключения контрактов, размещены на сайте площадки (<http://bp.zakazrf.ru/>), а также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контрактной системы в сфере закупо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http://gqz.sakhalin.gov.ru/>) 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сайт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зака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http://gzw.admsakhalin.ru/>).

На Сахалине выбрали лучши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Финал ежегодного смотра-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ое качество» прошел в одном из торгово-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комплексов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Участник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и более 20 предприятий - лидеров пищевой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егиона.

Впервые «Сахалинское качество» организовали на острове в 2005 году. Тогда, вспоминает министр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области Инна Павленко, на местном рынке преобладала импортная продукция. Поэтому главной идеей начинания стала популяризация произведенных в регионе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Со временем конкурсантов стало значительно больше. Мы усилили к ним требования. Конкурс стал проходить в два этапа. На первом эксперты исследуют продукцию, закупленную в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розничной сети. При этом дается оценка не только ее качественным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 Во внимание принимаются отзывы покупателей, а также фактор развити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предприятий. На втором - финальном

этапе, участвуют только те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и, которые смогли удовлетворить всем этим требованиям. А посетителям смотра-конкурса, который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водится в формате выставки, предлагается продегустировать образцы продукции, -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Среди тех, кто ознакомился с представленной местными 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продукцией, был 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атолий Макоедов. На выставке его внимание привлекли твердые сыры, которые производит сахалински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Мария Федотова. Из купленного у фермеров козьего молока женщина в поронайском селе Восток производит знаменитый камамбер по французской технологии.

- Это замечательный продукт, очень вкусный, - дал оценку образцу сыра Анатолий Макоедов. - Нам не страшны никакие санкции, пока есть такие энтузиасты и первопроходцы, - добавил он.

Среди победителей нынешнего конкурса - Корсаковский хлебокомбинат, который отмечен наградой за формовой хлеб из муки первого сорта. СПК «Соколовский» и молокозавод «Поронайский» представили лучшую сметану с массовой долей жира 20 – 30 процентов. У совхоз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вне конкуренции оказался кефир.

В других номинациях первые места были отданы ООО «Золотой теленок» (сардельки «Говяжья»), ООО «Фантазия» (зефир белый), ООО «Охотоморье» (баночная лососевая зернистая икра), ИП Харченко (пресервы рыбные «Кета-ломтики в масле»), ООО «Янтарное» (консервы «Рагу из лососевых рыб натуральное» и салат из морской капуст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и колбасный цех «Сахалинский» (свинья полукопченая колбаса и сардельки «Свинье»).

Оценить продукцию, представленную на «Сахалинском качестве», вскоре смогут и жители всей области. Ее планируют поставлять в районы.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об этом были заключены договоры с предприятиями торговли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Победители конкурса теперь имеют право использовать знак «Сахалинское качество» при рекламе своей продукции. Кроме того, они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ставить ее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100 лучших товаров Росси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ыбрали лучшего мастер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6 октября стали известны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я и призеров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 «Мастер года-2017».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ходила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Марафон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мастерства стартовал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2 октября. Его цель - поддержка талантливых, творчески работающих мастеро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повышение престижа рабочей профессии, продвижение передов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опыта. Конкурс по традиции прошел в два этапа. Первый, отборочный, состоялся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А во втором этап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мастер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из 9 учреждений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учебных мастерских и лабораториях он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свое умение и навыки. Выступления участников оценивал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предметное жюри и экспертные группы, в состав которых вошли специалисты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учреждени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итоге лучшим мастером года признан Денис Глеба, мастер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рного техникума (г.Шахтерск) по профессии автомеханик. Заслуженную награду победителю вруч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жюри,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льга Соломенко.

- Конкурс – весьма эффективная форма непрерывного само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Это и мотивационное поле, и общение, и обмен опытом. Мастеру просто необходим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а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это побуждает повышать уровень своего мастерства, с другой – является прекрасн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апробации различных инноваций, - отметила Ольга Соломенко.

- Впечатление о конкурсе - самое хорошее! Интересным было все: и «визитки», и мастер-классы! Все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проявляли свою неординарность, творчество, и у каждого была своя «изюминка». Все пять дней конкурса мы делились опытом, обменивались идеями и т.п. И свои достижения показали, и на других посмотрели. Это и было самым важным и ценным, - делится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 конкурсе победитель Денис Глебов.

Лауреатом конкурса признана Татьяна Сергеенко, мастер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по профессии парикмахер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курса отмечают, что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марафона показали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и творчества.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конкурса были вручены дипломы и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вели итоги независимой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2 месяц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водился опрос пациентов с целью сбора объективных мнений о работе медици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Анкетирование включало вопросы по ключев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реди них - комфортность условий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время ожидания приема, вежливость медперсонала,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ь оказанными услугами, открытость и доступность информации. Результаты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заседани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езависимая оценка медици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оказывающих медпомощь, проводится с 2014 года. Для этого на конкурсной основе привлекается консалтинговая компания, она определяется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в сфере госзакупок. Аналогичная работа проводится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 отметили участники заседания. - Список учреждений, проходящих эту процедуру, утверждается Общественным советом. Независимая оценка проводится в организациях разных форм собственности. В этот раз процесс охватил 36 медучреждени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 22.

Качество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оценивали посетители поликлиник, больниц и санаториев.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беспристрастности и достоверности данных к процессу не допускались сотрудники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нтервьюеры предлагали ответить на ряд вопросов специальной анкеты. Чем больше позитивных ответов, тем больше баллов. Заполнить опросник можно было и при помощи Интернета, ссылка была размещена на сайт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и лечебно-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ценивалось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наполнение самих сайтов, этой работой занимались эксперты.

В пятерке лидеров среди организаций амбулаторно-поликлинического профиля -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О Медико-диагно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Белая Роза – Сахалин», Медико-санитарная часть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ОО «Семейная клиника №1»,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врачебно-физкультурный диспансер.

Среди стационаров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баллов набрали областная детская больниц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кожно-венерологический диспансер, Долинская центральная районная больница, Городской родильный д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городская больница имени Ф.С Анкудинова.

Результаты независимой оценки опубликованы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о госучреждениях. Планы руководства областных медорганизаций по устранению выявленных недостатков будут рассмотрены на очередном заседани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оконтролируют этот процесс совместн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инздрава. Рейтинг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н руководством министерства и при оценк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аботы главных врачей.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едколледже вновь будут готовить зубных техников

В учебном учреждении уточняют потребность области в этих специалистах, чтобы определиться с объемами набора в профильную группу. В следующем учебном году здесь планируют увеличить общее число студентов.

- Наши ученики востребованы во всех лечеб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блем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нет. Мы ведем набор по дву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сестринское дело» и «лечебное дело» (фельдшер). Конкурс у нас все время высокий, в этом году больше трёх человек на место. Сейчас мы набрали 240 студентов, на 2018-й планируем - 270. В 2016-м было – 210,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базов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базов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Лариса Дзюва. - Зубных техников начнём готовить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У нас была ранее такая специальность, мы приостановили набор, так как закрыли потребность. Сейчас ситуация изменилась.

Растет и число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проходящих подготовку в колледже перед поступлением в различны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Вот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в колледже занимаются ученики спецклассов, которые формируются на базе школ. К преподавателям колледжа учащиеся приходят раз в неделю, курс рассчитан на учебный год.

- Мы школьникам даём частично программу первого курса. Стараемся больше уделять внимания практической части, с фантомами работаем. Ребята друг другу перевязки делают, давление и пульс измеряют. Это все пригодится в жизни в любом случае. При этом они могут с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стоит ли идти в медицинский институт или нет, - поясняет преподаватель медколледжа Олеся Казанцева.

В этом году 29 выпускников медицинских классов поступили в ВУЗы Томска, Новосибирска, Благовещенска, Владивостока и Хабаровск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흘어진 700만 해외동포 연결 고리는 한글

“우리의 700만 해외동포는 단절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일제 시대 연해주로 간 고려인, 사할린에 강제동원된 사람들, 살기 어려워 미국으로 간 이들... 이제는 연결의 한민족 시대를 열어야 하고 그 고리는 한글과 한국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2일 만난 장제국(사진) 동서대 총장은 막 러시아 아스트라한 지역 출장을 다녀왔다고 했다. 한글날을 앞두고 지난 달 말 열린 아스트라한 국립대 세종학당 개소식 참석을 위해서다. 동서대는 2014년 리투아니아, 2015년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러시아에서 세종학당을 책임지게 됐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지역들이다.

장 총장은 "아스트라한은 스탈린 시절 연해주에서 강제로 이주한 고려인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라며 "현재 그 후손 3000여명이 살고 있는데 이번 세종학당 설립 소식에 너무나 기뻐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는 고려인 세르게이 최는 개소식에 참석해 직접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고 한다.

장 총장은 "동서대는 한국어 많이 알려진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런 지역들을 택해 세종학당을 세우고 있다"며 "러시아 남부 볼가강 하구 삼각주에 건설돼 국제무역이 활발한 이곳 아스트라한을 기반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카스피 지역에 널리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장 총장은 아스트라한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접하고 놀랐다고 한다. 그는 "세종학당 공식 개소식도 하기 전 이미 현지인 17명이 등록을 했다. 이들은 한국 노래와 춤도 능했다"며 "K팝 덕에 한창 무르익었던 한류의 인기가

조금 사그라든 느낌이 없지 않지만 여전히 식지 않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세종학당이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에 위치한 동서대는 지방 사학으로는 드물게 70개국에서 온 1000명의 유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글로벌 대학이다. 현지의 파트너 대학에서 2년, 동서대로 유학 와 2년 공부해 학위를 따는 '2+2'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 당초 2020년 예정이던 1000명 목표가 지난해 달성돼 현재는 '2020년-1500명 유치'로 목표를 상향조정했다. 장 총장은 동서대가 '연결의 한민족 시대'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나타냈다. 2004년부터 사할린에 거주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후손들 중 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동서대에서 공부시킨 뒤 사할린으로 돌려보내 지역 사회에서 일하도록 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동서대의 자랑거리다. 장 총장은 "이같은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한민족의 저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걸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시금 한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언어 안에는 역사와 문화가 모두 들어 있다. 한 외국어를 깨친다는 건 그 나라에 대해 깊숙히 들어간다는 의미"라며 "그런 면에서 세종학당은 매우 중요하다. 전략적으로라도 좀 더 많은 보급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학당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 재단이 한국어 교육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처음 해외에 설립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기관이다. 운영은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 대학이 맡는다.

[출처: 중앙일보]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5

너의 조국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전호의 계속)

Весь процесс иммигр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роходил нелегально. Жизнь в Коре в те времена была сложна: процветала коррупция, действовала жесткая система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а позже началась и японская интервенция. Граница между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охранялась. Поэтому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принимали решение покинуть обжитые места и отправиться в поисках лучшей жизни к обширным землям соседней страны. В основном это были бедные крестьяне из северо-восточных провинций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оцесс иммиграции продолжался до начала 30-х гг. XX века. Именно в 1930 году границ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была закрыта, что и остановило приток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а также прервало связи иммигрантов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В 1937 году началось насильствен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реднюю Азию и Казахстан. Это был тяжелый и печальный период в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К моменту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депортации число проживающи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орейцев составляло около 170 тысяч человек.

Как упоминалось выше, основную массу переселенцев составляли выходцы из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ес они были носителями одной разновид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диалекта провинции Хамкёндо. Этот язык, претерпев некоторые изменения, сохранился до наших дней. Связано это с тем, что старое поколение корейцев умирает, а новое не придает изучению этого языка большого значения. Среди молодых корейцев немало таких, которые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знают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ем не менее изучение этой разновид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едставляет огромную научную ценность. Дело в том, на его развитие перестал влиять язык, использующийся на сам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этому изменения, происходившие с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в самой Коре, никак не отражались на языке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орёмаль (고려말) сохранил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еверо-восточных провинций (в частности провинции Хамкёндо), имевших место на момент конца XIX начала XX вв.

При изуч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спользуемого корейцами СНГ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что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спользуемый корейцами, проживающими на о. Сахалин, отличается от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потребляемого на материковой части. Дело в том, что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на о. Сахалин, происходило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X в., и в основном из юго-восточных провинций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зже к населению острова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выходцев из КНДР.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переселенцев владели японским языком. Все эти особенности безусловно повлияли на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спользуемого на Сахалине, на это уже является предметом отдельного и, на наш взгляд, интерес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акт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1) -에 불과하다, -에 지나지 않다.

"всего лишь...", "только...", "не более... чем..."

Обе формы несут одинаковую смысловую нагрузку и являются взаимозаменяемыми.

Примеры:

그것은 구실에 불과하다. (그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다.)

→ Это всего лишь оправдание.

그것은 그저 추측에 불과해요.

→ Это не более, чем предложение.

너의 논거는 그저 말에 불과하다

→ Твои доводы не больше, чем просто слова.

(2) -의 경우에, -(으)ㄴ//는(으)ㄴ 경우에 "в случае (когда)..."

Указывает на условие или время совершения действия.

Примеры: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В случае чего-то срочного - звоните.

컴퓨터가 이상이 생길 경우에 A/S 센터로 가야 된다.

→ При выявлении неполадок в работе компьютера обратиться в сервисный цент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19로 전화 주세요.

→ В случае пожара звоните "119".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우리말로 깨닫다]

오뎅이와 오뚜기

어떤 맞춤법은 틀리는 이유가 상표나 방송에 있다. 참 아쉬운 일이지만 상표를 틀리게 쓰거나 방송에서 자주 실수를 하여서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상표로는 <오뚜기>가 있다. 오뚜기는 카레 등으로 유명한 상표이다. 쓰러져도 일어나는 불굴의 상징이기에 회사명으로 썼을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더 오뚜기를 사랑했을 것이다.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그런데 문제는 오뚜기가 표준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뚜기의 표준어는 <오뎅이>이다. '오뎅'에 이가 붙어서 형성된 어휘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형성과정은 모르고 설마 회사가 이름을 잘못 썼을 리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다. 오뎅이가 맞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나드리> 같은 상표도 발음 나는 대로 쓴 표기이다. 원래 맞춤법은 발음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나들이>라고 해야 한다. 나가고 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발음하기 편하고 보기 예쁘다는 이유로 상표를 만들어 낸 것이다. 비교적 이 어휘는 많이 틀리지는 않지만 혼동의 원인이 된다는 점은 명확하다.

또 어떤 상표는 우리말을 영어로 보이기 위해 애쓴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어휘는 아예 한국어와 외국어를 합쳐서 새로 어휘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식으로 단어를 만들다 보면 우리말에서는 이상한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소지움>이라는 상표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상표를 만들 때 <콜로세움>과 같은 어휘와 <미소짓다>를 합쳐서 미소를 짓게 만드는 건물이라는 의미로 작명을 한 듯하다. 생각은 좋았지만 한국어로는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그 상표를 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왜 저 건물은 미소를 지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미소를 짓게 만드는 건물이 아니라 미소를 지우는 건물로 의미 오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제는 외래어인 경우에 더 많이 일어난다. 분명

히 외래어 표기법이 있음에도 고유명사라는 미명(美名) 하에 마음대로 상표명을 붙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상표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인들은 맞춤법을 오해하고 틀리게 된다. 기업이 틀린 말을 상표로 썼겠냐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상표의 위력을 역으로 실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영화 속의 무서운 상어인 죠스(조스)는 아이스크림이나 떡볶이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당연히 죠스가 맞는 표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말 외래어 표기에서는 지웃이나 치웃 다음에는 이중모음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조스>가 맞는 표기이다. 하지만 수많은 곳에서 죠스라고 쓰니 혼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쏘나타(소나타), 가스 활명수(가스), 휘밀리(패밀리) 등도 상표에 쓰일 때 틀린 표기를 사용하여 문제가 된다. 우리말에서는 외래어에 된소리 표기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당연히 소나타, 가스라고 써야 한다. 어쩌면 상표를 만드는 사람들은 역으로 사람들에게 익숙한 표기를 썼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표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말의 외래어 표기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상표나 사람들의 폭넓은 오용에 있지 않을까 한다. 기본 원칙이 무수히 안 지켜진다. 동네를 다니다 보면 상점 간판에 수많은 오류를 발견하게 된다. 틀린 것을 발견하면 상금을 준다고 했다가 망할 뻔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슈퍼마켓, 카센터, 커피숍 등등의 어휘들도 틀린 글자가 엄청 나타난다. 한 번 외래어 표기법을 공부한 후 동네 길을 걸으면서 찾아보시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물론 외래어 표기법이 복잡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 나 역시 외래어 표기법이 혼동될 때가 있어서 좀 더 쉽게 만들거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을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정해져 있는 외래어 표기는 가능하면 잘 배워서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기업이나 방송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케찰(케첩), 카라멜(캐러멜), 바게뜨(바게트)' 등의 어휘를 고유명사라는 이유로 그냥 두어야 하나 고민이 생긴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Экспозиция знакомит с материалами, отражающими деятельность руководителей первого сове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Ленина, Г.Петровского, П.Лепешинского, Г.Орджоникидзе), личными вещами Я.Свердлова, Ф.Дзержинского, а также подлинным оружием участников революции, фотографиями, листовками, памятными жетонами и медалями, подлинн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рассказывающими о ключевых эпизодах драмат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1917 года, сообщает на пресс-служба музея.

고전음악의 애호가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되는 <카메라타>축제에 모여

12월 9일에 개최되는 <카메라타> 제2회 시 고전음악축제에 예술적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시민들의 참가를 기다린다.

참가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음악학교 및 예술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참가를 권한다. 신청서는 10월 27일까지 sakhmuz@mail.ru 이메일 주소로 하거나 usb에 담아 콤포스카야 거리, 213(제5아동음악학교)에 제출을 요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행정부 문화국에 따르면 <카메라타>축제는 17-19세기의 음악작품들이 음악가들의 연주로 빛을 발하고 영원한 고전 클래식 애호가들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말한다.

축제의 참가조건과 규정에 대한 사항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행정부 문화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 신청서 및 서식도 올라 있다고 시청 홍보실이 전했다.

추가정보는 752-333, 312-703 (추가 1, 7).

Ценители старинной музыки соберу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фестивале "Камерата"

Творческие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о II городском фестивале старинной музыки "Камерат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9 декабря.

К участию приглашаются учащиеся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музыкальных школ и школ искусст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ез возраст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Для этого до 27 октября необходимо направить заявку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sakhmuz@mail.ru либо предоставить ее на электронном носителе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Комсомольская, 213 (ДМШ №5).

Как отметили в управлении культур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фестиваль "Камерата" — прекрас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блеснуть мастерством исполнения музыкаль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XVII-XIX веков и расширить круг поклонников нестареющей классики.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оложением и условиями участия в фестивале мож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управления культур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м же опубликована форма заявк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ам: 752-333, 312-703 (добавочные 1, 7).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글짓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글짓기 공모를 개최합니다.

- **취지:**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 대한 자랑과 보람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 **공모대상:** 사할린 동포
- **공모부문:** 체험수기 (후기 - 소감 등)
- **입상자 수:** 3명 (상금)
- **공모주제(테마):** 올해부터 추진된 2-3세 모국방문에 대한 소감, 작년부터 추진된 1세대 동포의료검진에 대한 후기 또는 소감. 한글과 러시아어로 가능.
- **공모기간:** 2017년 12월 20일까지. 우수작은 새고려신문에 게재.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Redakcija gazety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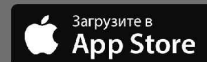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т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